

도시문화에서의 전통과 현대

김효정*

〈目 次〉

I. 들어가면서

II. 나오면서

I. 들어가면서

우리는 전통과 현대라는 주제를 접할 때 마다 무엇이 전통이고 무엇이 현대인가 그 갈림길에서 주춤거린다. 그것은 어떤 집단이나 공동체에서 지난 시대에 이미 이루어져 계통을 이루며 전하여 내려오는 사상, 관습, 행동 따위의 양식이라고 하는 전통과 지금의 시대,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사상(思想)이나 그 밖의 것이 현재와 같다고 생각되는 때부터 지금까지의 시기를 현대라고¹⁾ 하는 두 단어의 사전적 의미에서처럼 시간적 개념과 내용적 측면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어떻게 보면 ‘현대’라고 하는 지금의 시간 속에 예전부터 계통을 이루며 전하여 내려오는 ‘전통’이라는 무형의 내용이 내재되어 흐른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그러나 번번이 전통적인 삶과 현대적인 삶의 방식에서부터 비롯된 수많은 차이들로 인하여 전통과 현대는 시간과 내용이 혼합된 별개의 것으로 이해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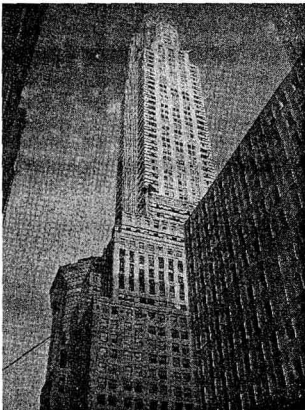
특히 도시공간에 있어서는 현대와 전통이 시각적으로 확연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서로를 나눌 수 있는 기준이 명확하게 존재하는 듯 하다. 사실 또한 그렇다. 시대적 철학과 사상, 기술과 양식을 표현하는 것이 당대의 건축이고 도시공간이라고 한다면 과거의 것과 현대의 것에는 엄연히 구별이 있기 마련이다. 그래서인지 도시를 걷다가 조금 다른 모습의 건물이나 가로를 접하게 되면 낯설게 느껴진다. 그러다 이것은 몇 년도에 지어진 건물이고 또 저것은 몇 년도에 조성된 가로라는 간단한 설명만으로도 “아! 그렇구나”며 차이를 분명히 하게 된다. 즉 형태의 차이가 시간적 차이로 이해되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건물과 가로의 시간을 알았다고 해서 각 건물에 내포된 시대적 특성을 모두 이해한 것은 아니다. 단지 각 건물에 내재된 시간의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책임연구원

1) 엠파스국어사전 <http://alldic.empas.com/search/krdic.html>

차이와 결과적으로 시간의 차이에서 비롯된 형태의 차이를 수궁할 뿐이다. 그렇다면 ‘시간’이 ‘형태’를 변화시킨다고 가정했을 때 시간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물리적인 형태가 변화되는 것일까?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 형태의 변화가 확연하게 파악된다는 것은 시간의 흐름이라는 자연 외에 다른 무엇인가가 작용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그것은 분명 시간과 형태의 주체이자 매개자인 ‘사람들’로 하여금 신봉하고 있던 전통이라고 하는 기존양식을 버리고 당대의 새로운 무엇인가를 선택하도록 강요받는 엄청난 사건이었을 것이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떠한 외적 충격에도 내적으로는 변화를 원치 않는다. 그리고 어제와 같이 오늘도 내일도 지속되기를 원한다. 그러나 주변을 둘러보면 사람들의 이러한 내적 바람과는 달리 민첩하게 충격에 대응하고 전통이 무엇이고 현대가 무엇인지 고민도 하기 전에 많은 것이 사라지고 또 생겨나면서 변화를 거듭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가운데 사람들은 여전히 언제나 주변보다 느리게 변화하고자 노력하며 때로는 변화 속에서 과거를 향수하고 그리워하고 있다.³⁾ 물론 다른 한편에서는 무엇에 앞서 이 모든 변화를 극복하고 누구보다도 현대적이기를 희망하면서 뒤 질세라 변화를 쫓아가고 있다. 사람들의 이러한 이중적 욕망이 언제나 과거와 다른 현대의 모습을 만들어 왔고, 외형은 최첨단·초현대식을 지향하지만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내적질서는 무의식중에 전통을 고수함으로써 전통과 현대, 과거와 현재가 혼재하는 도시공간과 도



〈그림 1〉 뉴욕빌딩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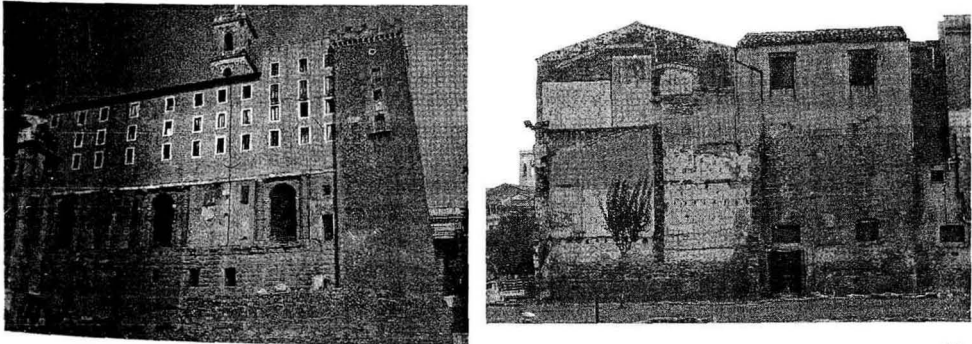
〈그림 2〉 아테네(역사+현대)

- 2) 시간의 변화로 인해 일어나는 사물의 노화현상이나 자연환경에 의해 유발되는 불가피한 변형을 제외하고 인간에 의해 만들어지는 시대적 산물인 경우에 철기의 발견이나 자동차, 통신수단 등의 발명 등 ‘문명의 혁명’을 가져다 줄만한 엄청난 충격 속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의미한다.
- 3) 사람들의 가치관이나 관습 등 무형의 것은 언제나 유형의 것을 쫓아 변화하고 또 역으로 유형의 것은 사람들의 가치관이나 사상, 철학, 관습 등 무형의 것에 의해 변화되지만 유형의 변화에 비해 사람들의 생각이나 관습 등의 변화가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 이것은 시대와 나이를 막론하고 “요즘 젊은 것들은 ... 우리 때는 그러지 않았는데 ...”며 세월에 따른 풍습의 변화를 수용하기 어려워하는 것에서 알 수 있다.

시문화를 창출하는 것이 아닐까?

그렇다보니 우리는 도시공간에서 새로움과 낯음, 꿈과 현실, 예술과 상품, 빠름과 느림 등의 경계를 체험하게 되고 도시는 우리가 이 문턱에서 저쪽으로 발을 내밀었을 때와 반대 방향으로 발을 내밀었을 때 야누스처럼 이중적 모습을 나타낸다. 즉 같은 장소에서 있지만 시선을 어디에 두는가에 따라 전혀 다른 두 공간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의 모습이며, 도시는 안과 밖의 모호한 경계, 꿈과 깨어남 그리고 고대 세계와 현대 세계가 서로 얽혀 존재하는 거대한 미로와 같다.⁴⁾ 다시 말해서 도시공간이 인간과 인공물들의 단순한 집합체가 아니라 문화적 실천, 의식, 행동들이 수직적·수평적으로 구조화된 것이기에 시간의 흐름과 변화의 물결 속에서 과거와 미래, 현재를 갈등하는 인간의 의식들이 도시의 구조 위에 표출되고 뒤섞여 도시는 더욱 다양하고 복합된 모습을 가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갈등의 흔적은 도시 곳곳에서 발견된다. 도시 한편에서는 끊임없이 낡은 건물을 헐어내고 초고층 건축물들을 세우고 다른 쪽에서는 쓰러져가는 오래된 건물 등을 문화유산이라며 보존·보호한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최첨단 미디어·디지털을 이용한 게임이 한창이라면 다른 한쪽에서는 사람과 사람들이 뒤엉켜 즐기는 전통적인 축제들을 즐기고 있다. 이외에도 도시공간에서 수많은 이중적 문화현상들을 발견할 수 있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다각적인 관점에서 해독을 시도하고 있지만 모든 현상들을 분석하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여기서는 현대도시에서 시각적으로 뚜렷하게 구분되어지는 경관을 지니고 있는 역사지구 또는 역사적 건축물에 대한 현대인의 관심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현대도시에서 가장 큰 문제로 여겨지는 전통적인 관계성 회복을 위한 노력의 형태들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15

〈그림 3〉 로마시청, 시칠리아주택가: 시간의 흐름 속에서 수없이 많았을 갈등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건축물들

4) 철학아카데미, 『공간과 도시의 의미들』, 소명출판, 2004, p. 206.

1. 역사도시에 대한 가치 재조명

산업혁명 이후 세계는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룩하였고,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더욱 새롭고 기능적이며 편리한 것들을 창출하고자 모든 에너지를 쏟아 부었다. 그래서 인간은 엄청난 사회적 생산력의 발전 경험하였으며, 또 도시는 언제나 상상 그 이상의 모습으로 변화를 거듭할 수 있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낯선 풍경만이 주변을 차지하고 있음을 깨닫고 히로시마의 폐허를 처음 경험한 생존자의 증언처럼 기억의 장소들이 모두 사라지고 없음에 때때로 충격을 받는다.

“나는 히로시마 언덕에 올라가서 내려다보았다. 히로시마가 사라져버린 것을 보았다. ... 나는 그 광경에 충격을 받았다. ... 그때 내가 느꼈고 지금도 여전히 느끼고 있는 것을 말로 설명할 수는 없다. 물론 나는 그 이후에 많은 끔찍한 장면들을 보았다. 그러나 바로 그 경험, 아무것도 남았지 않은 히로시마의 모습을 발견했던 그 언덕에서의 경험이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그 느낌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다“(한 히로시마 생존자)⁵⁾

다시 말해서 인간은 특정장소를 통해 획득한 경험들에 대해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있지만 현대화라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 앞에서 스스로 경제성을 따져 ‘오늘의 것’으로 대체한 현재의 화려한 문명을 바라보며, 가끔은 기억 저편에 있는 그것을 그리워하기도 낯설어 하기도 한다. 이



〈그림 4〉 경주쪽샘지구 철거현장

5) 에드워드 렐프, 김덕현 옮김, 『장소와 장소상실』, 논형출판, 2005, p. 99.

러한 인간의 이중적 행태는 비록 특정한 공간에서의 경험을 잊지 못하지만 현실을 능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자신을 자각하는 복잡한 심리에서 출발하고 있다고 본다면 이해가능하다.

다행스럽게도 오늘날 기억된 공간의 물리적인 형태는 사라졌지만 현대화로의 과정을 통해 개발되어진 첨단기술 — 디지털·영상·미디어 복원 — 로서 그것을 재현할 수 있게 되었으며, 언제든지 첨단미디어를 통하여 과거로의 여행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주변에서는 이미 사라졌지만 다른 어떤 곳에서는 다른 매체나 형태로 보존되어 있는 기억의 켜들이 있기 때문에 시간과 경제적 여유만 있다면, 발달된 교통수단과 글로벌한 정보력을 바탕으로 그것을 쫓아 떠날 수 있게 되었다.

이렇다 보니 유래 없이 전통과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는 역사유적지, 건축문화유산을 가진 도시들이 사람들로부터 새롭게 재조명 받기 시작했으며, 세계는 또 다른 의미에서 그것이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매력물로서 경제적인 가치를 창출한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사실 문화유산은 유네스코나 문화재보호법에서의 문화유산에 대한 정의를 빌지 않더라도 역사와 문화의 증거자료로서 어떤 문화유산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가에 따라 국가나 지역의 역사와 문화의 수준을 나타낸다. 하지만 2004년 한해 8억 명의 관광객에 의해 연간 480조원의 매출액을 창출하고 종사자가 전 산업의 10%를 차지하는⁶⁾ 관광산업에서의 중심자원이 되고 있음을 간과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한 예로 문화유산의 특히 역사도시의 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는 세계 어느 여행사에서 판매하



〈그림 5〉 관광지로서의 이집트 피라미드

6) WTO, Compendium of Tourism Statistics, 2006 Edition.

고 있는 관광상품을 보면 알 수 있다. 일부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골프, 등반, 트레킹 등 레저스포츠 관련 상품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문화유산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세계관광객의 약 55%, 세계관광수입의 53%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유럽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있는 관광행태를 살펴보면 문화유산과 역사도시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역사·문화 탐방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이다.

역사도시를 둘러싸고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현상은 유럽뿐만 아니라 세계 관광패턴을 바꿔놓고 있을 정도이다. 도시의 문화적 자산이 창출하는 경제적 효과로 인하여 — 티켓이나 문화상품 판매 등으로 얻어지는 직접적 수입 외에도 지역방문에서 지출하는 교통비이나 식음료비, 숙박비, 쇼핑 등에서 얻어지는 간접적 수입, 그것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고용창출과 호텔, 관광, 문화상품, 웹사이트 등 수많은 연계산업들을 발생시키면서 — 점차 역사문화자원에서 지역산업자원으로 인식이 전환될 정도이다. 이것은 돈 먹는 하마로 지역개발의 걸림돌이자 골칫거리로 치부되던 문화유산의 놀라운 반전이라고 할 수 있으며, 오랜 시간 동안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 문화유적지를 보존하고 관리하여온 역사도시들의 승리라고 할 수 있다. 아니 현대문명을 만들고 있는 인간의 이중성이 낳은 놀라운 반전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문화유산의 놀라운 경제적 성과는 퇴계 이황, 서애 유성룡 등을 배출한 유교문화의 산실인 안동에서 크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고택과 종택을 활용한 체험 프로그램은 여름철 성수기에는 1개월 전에 예약을 할 정도로 인기가 높아 지역주민에게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주고 있으며, 10년

〈표 1〉 상품명: 낭만유럽 6국 10일

날짜	여행지	일정	날짜	여행지	일정
1	인천	-	6	비엔나	웬브른 궁전, 오페라하우스, 케른트너거리, 성수테판사원, 호트부르크 왕궁
2	프라하	프라하성, 황금소로, 성비트교회, 바츨라프광장, 틴교회	7	잘즈부르크	미라벨정원, 호엔잘츠 부르크성 대성당, 케트라이트 거리
3	브로노, 크라코프	아우슈비츠, 바벨성, 중앙광장	8	인스부르크	마리아테레시아거리, 황금지붕, 구시가지관광
4	비엘리츠키	소금광산	9	퀴센, 뮌헨	노인슈바인슈타인성, 마리엔광장, 시청사, 프라우엔 교회
5	부타페스트	영웅광장, 시민공원, 어부요새, 마차시교회, 부다왕국, 겔레트트 언덕	10	인천	-

자료: 여행사닷컴(2007. 4. 19 현재)

〈표 2〉 지역별 세계관광객 수(2000-2005)

구분	관광객수(백만명)						성장률(%)		구성비(%)	
	2005	2004	2003	2002	2001	2000	05/04	04/03	2005	2004
전세계	808.0	766	697	709	688	689	5.5	10.0	100	100
아시아·태평양	156.2	145.4	114.2	126.1	116.6	111.4	7.4	27.3	19.3	16.2
유럽	443.0	425.6	408.6	407.4	395.8	396.2	4.3	4.2	54.9	57.5
미주	133.1	125.8	113.1	116.7	122.2	128.2	5.8	11.2	16.5	18.6
아프리카	36.7	33.3	30.7	29.5	28.9	28.2	10.1	8.4	4.5	4.1
중동	38.4	35.9	30.0	29.2	25.0	25.2	6.9	19.8	4.8	3.7

자료: WTO, 2006E

〈표 3〉 지역별 세계관광 수입(2000-2005)

구분	관광수입(10억달러)		성장률(%)		구성비(%)	
	2004*	2003	04*/03	03/02	2004*	2003
전세계	623	524	9.1	-3.1	100	100
아시아·태평양	125	95	24.7	-9.9	20.1	18.0
유럽	327	283	2.6	-2.6	52.5	54.0
미주	131	114	11.1	-1.5	21.1	21.8
아프리카	18	16	5.3	6.4	2.9	3.0
중동	21	17	21.9	13.8	3.4	3.2

자료: WTO, 2005E

*2004년은 잠정치, 2005년도 미 집계

제를 맞은 안동국제탈춤축제는 매년 100만여 명의 관광객들을 유치하여 439억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거두고 있다. 나아가 보유하고 있는 지역의 문화적 자산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2009년까지 문화콘텐츠 박물관과 안동문화예술관을 건립하고 탈춤, 유교문화를 활용한 플래시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 콘텐츠를 개발하는 등 디지털화 사업을 추진하여 새로운 지역산업을 창출하고자 시도하고 있다. 이제 안동이라는 지역경제의 중심에 전통문화유산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

또 다른 예로 세계 문화유산 관광의 중심지인 이탈리아는 2004년 37,071천 명 관광객이 방문하여 35,378백 만 불의 관광수입을 얻고 있으며, 이러한 이탈리아의 성과는 각 도시에 있는 개별 유적지나 박물관 등의 수입을 보면 쉽게 이해가 된다. 특히 이탈리아 여행의 중심지인 로마는 콜로세움과 파라티노 유적지에서 2005년 한 해 동안 380만 명이 방문하여 티켓 판매비로 약 280 억원(23,454,800유로)의 수익을 창출 얻었고, 폼페이 유적지는 235만 명의 방문객에 의해 210억 원(17,397,165유로) 이상의 수입을 창출하고 있다. 이러한 통계를 통해서 한 도시가 문화유산이

〈표 4〉 관광수지(2006)

순위	방문객수	천명	관광수입	백만불
1	프랑스	75,121	미국	93,922
2	스페인	52,430	스페인	46,202
3	미국	46,085	프랑스	40,686
4	중국	41,761	이탈리아	35,378
5	이탈리아	37,071	영국	28,188

자료: WTO, 2006E

〈표 5〉 박물관, 모뉴먼트와 유적지 관광수지/국립(2005~이탈리아)

순위	유적지명	도시명	방문객수(명)	유 로
1	콜로세움, 팔라티노 유적	로마	3,880,179	23,454,800.00
2	폼페이 유적	폼페이	2,354,471	17,397,165.20
3	우피치미술관	피렌체	1,342,558	6,988,488.00
4	아카데미 미술관	피렌체	1,177,513	6,988,488.00
5	산타안제로 성	로마	808,787	2,815,769.50

자료: 이탈리아문화부통계, 2005

창출하고 있는 경제적 가치는 콜로세움뿐만 아니라 수많은 박물관과 미술관, 유적지 등이 있는 로마의 경우, 문화유산이 창출하는 직접적인 수익에 도시가 얻는 간접수익을 더하면 추정이 어려울 정도이다.⁷⁾

이처럼 문화유산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새로운 산업자원으로 부각되자 국가와 도시는 앞 다투어 문화유산의 보존 및 관리에 막대한 투자를 하게 되었다. 물론 관광자원으로서 역할을 인정받기 이전에도 국가적·문화적 사명감으로 문화유산의 보호 및 보전에 투자를 하고 있었지만 관광산업으로서 기대치가 점점 높아짐에 따라 투자 역시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것은 국가주도하에 문화유산의 관광자원화사업이 다양한 각도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다. 사실 문화유산의 원형보존원칙을 철저히 고수하고 있다고 하는 이탈리아 역시 문화유산에 대한 투자에 있어서는 시급성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면 투자대비 성과를 우선 고려하고 있다. 이것 또한 문화유산의 문화적 가치를 인정하지만 그것으로 인해 발생하는 표 3에서와 같은 또 다른 가치의 비중 즉 경제적 가치의 비중이 점점 커져만 가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 아니가 여겨진다.

7) 김효정, 『국토』, “국토의 문화적 잠재력의 재발견과 정책과제”, pp. 37-47.

〈표 6〉 문화재 부분 재정투자 현황 및 계획(단위: 억원)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예산	2,994	3,383	3,500	3,415	3,755	3,922	4,168	4,280	44,77	4,678	4,893

자료: 2005~2009 국가재정운용계획, 기획예산처

〈표 7〉 문화유산의 관광자원화 균특사업 현황(단위 백만원)

사업명	기간	예산(이전/ '05/ '06)	내용
유교문화관광자원화	2000~2010	103,643/35,341/32,008	유적보수정비복원 및 주변환경정비
남해안관광벨트개발사업	2000~2009	130,175/71,959/65,548	유적보수정비 및 주변환경정비
백제역사재현단지조성	1994~2010	212,670/49,381/43,464	역사재현촌, 연구교육촌조성
지역문화유산개발사업	1994~2010	50,127/8,851/8,147	전곡리선사문화체험관광벨트조성 양주회암사지종합개발, 아차산일대보루군정비

그러나 문화유산의 관광화는 한번 훼손되면 원래의 진정성을 회복하기 어려운 문화재의 특성 상 선부른 활용은 자칫 문화·역사적 가치를 훼손·상실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신중히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2. 원 도시(original city)와 신 시가지(new town)

사람들의 기억과 관련된 심리적 목적에서는 지역의 문화·경제적 목적에서든 유리 and 철골시멘트로 점철되는 마천루들 틈에서 살아남아 시간이라는 색채를 더함으로서 독특한 아우라를 획득하고 있는 문화유적지(건축)는 현대와 전통이라는 이질적인 경관을 제공하는 주요한 요소가 된다. 이들 두 경관의 조합은 도시마다 시대마다 조금씩 다른 형태를 보이고 있다. 한국의 서울을 비롯한 대부분의 도시와 같이 역사적인 건축물 군이 도심의 빌딩 숲 사이에 파편처럼 분포되어 있는 형태가 있는가 하면 이탈리아 로마나 프랑스 리옹처럼 구도시를(sentro storico) 보호구역으로 설정하고 점진적으로 도시를 확장하는 형태, 구도시와 신도시를 구분하기 위하여 녹지·공용공간을 확보함으로써 경계를 분명히 하는 형태와 구도시를 온전히 보호한 채 멀찌감치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는 형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전개되었다. 이러한 신·구 도시와의 조합방식은 도시의 확장 과정에서 발생한 역사·전통 보존과 현대화라는 갈등 구조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



〈그림 6〉 서울



〈그림 7〉 리용

지 보여주지만 확실히 구도시가 신도시와의 조화 속에서 얼마나 온전히 보존·관리되었는가에 따라 앞서 논의되었던 문화·경제적 가치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1) 신시가지 확장의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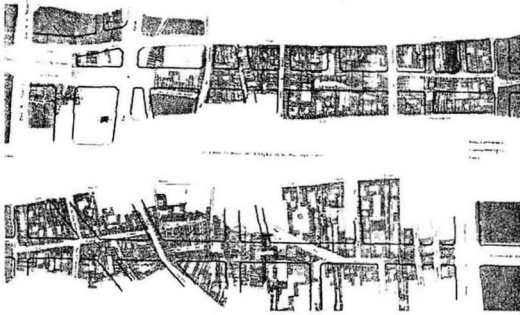
사실 도시는 어느 시대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새로운 사회적 기능의 요구가 있다면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구석기에서 신석기로, 신석기에서 청동기 철기시대로의 전환에서도 지금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겠지만 나름대로 변화는⁸⁾ 있었을 것이고, 그리스·로마시대 거쳐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끊임없는 변화와 더불어 과거의 것은 새로운 것으로 대체되었을 것이다. 특히 18세기 산업혁명과 함께 불어 닥친 기술적·사회경제적·문화적 변화는 글로벌(식민지정책) 정책과 도시화로 이어지면서 도시구조에 엄청난 영향을 주었고⁹⁾ 오늘날과 같은 도시의 형태를 갖추게 된 전기를 마련하였으며, 이 시기에 이루어진 도시의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의 4가지 형태로 요약할 수 있다.

1700년에서 1800년, 시기에 이루어진 도시 확장의 유형은 첫 번째는 18세기 후반 하우스만(Hausmann, 1809)에 의해 이루어진 파리의 도시계획(1853~1871)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이것은 도시의 주요 축을 따라 지금의 콩코드 광장에서 개선문에 이르는 거리를 확장하고 주변의 집들을 고층으로 재개발하는 형태로서 주로 군사·정치적 목적에서 무리하게 시작된 계획이었다. 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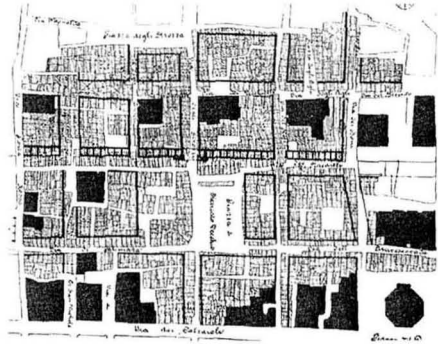
8) 지금과 같은 도시의 모습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집단적 모여 생활하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기능들이 집합되기 시작했다는 의미에서 도시라는 개념을 적용한다.

9) 갑자기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집중된 인구조로 인하여 기본적으로 주택, 병원, 학교 등 도시기반시설이 부족하게 되었으며, 일자리 부족, 도둑질, 살인, 강도, 의료서비스 부족 등 사회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아울러 필요에 의해 도시 구석마다 무질서하게 집과 공장 등이 세워지기 시작하자 도시는 햇빛과 바람이 들지 않는 음침한 산업도시로 진락하고 넘쳐나는 사람들이 버린 쓰레기와 산업폐기물로 인하여 도시는 점점 더 위생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안게 되었다. 이에 도시는 여러 정치적·경제적 이유를 떠나 도시 사회적, 위생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새로운 도시를 필요로 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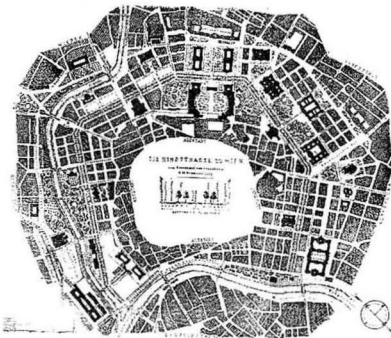
만 하우스만의 계획은 주거와 위생, 교통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전형적인 수법이 될 정도로 기능적이었으며, 이 과정에서 도시의 미학적인 측면을 강조하여 역사적인 건축물들의 가치를 제고함으로써 지금의 파리를 가능하게 하였다. 두 번째는 구도시를 경계 짓던 오래된 성벽을 허물고 그 자리에 공원 및 공공시설을 배치함으로써 신·구 도시공간의 완충지역을 구축한 비엔나의 링 형태의 계획수법이다. 1853에서 1859년에 이루어진 이 계획 역시 성벽을 허물고 넓은 공간을 군사적 목적에서 활용하였지만 고도에서 신도시로의 변환을 보여주는 경계의 띠이자 부족한 행정·문화 기능을 충진하는 질충의 띠로서 기능적인 측면은 물론 문화·경관적인 측면에서도 신·구간의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고 있다. 세 번째 유형은 신·구도시의 기능적·경관적인 간섭을 피하고자 별도로 도심을 구축하는 베를린의 도시계획이 대표적이다. 베를린은 파리와 런던 인근의 유럽도시들과 마찬가지로 산업화로 인한 도시기능의 확대 요구에 중심부를 동쪽으로 살짝 이동함으로써 해결하였다.



〈그림 8〉 파리/상제리제구역 재개발



〈그림 9〉 피렌체 도심재개발



〈그림 10〉 비엔나 도시계획도



〈그림 11〉 아테네 도시계획

이 계획은 '새 술은 새 부대에'라는 말처럼 새롭게 요구되는 도시 기능은 새로운 도시에서 충족시키겠다는 전략으로 이해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서울과 같은 형태로 고고유적지나 역사적 건축물을 일정 범위 내에서 보호하도록 하고 그 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도시구조를 재편성하는 경우이다. 고대문명과 도시문화의 꽃이라 불리는 아테네 역시 이 경우에 해당한다. 여기서 어떤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다만 현재의 도시의 구조와 그것이 만들어 내는 도시문화를 비교했을 때 오늘날 많은 차이가 있음을 알 뿐이다. 그렇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도시 안에서의 전통과 현대 간의 갈등은 인간의 역사가 시작되고 도시가 형성된 이후 당면한 과제였으며 언제나 현재의 문제에 속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은 변화 앞에서 과거에 대해 강한 애착을 드러내지만 또 언제나 새로운 것을 쫓아서 변화를 시도하고 적응해 나간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공간에서 현대와 전통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해서는 적절한 법과 제도¹⁰⁾가 수반되어야 하며, 아울러 이것을 지탱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국가적 투자와 함께 개개인에게 적용될 수 있는 경제적 손실을 감내할 수 있는 국민 또는 시민 차원에서의 문화적 후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2) 역사지구 및 역사적 건축물 등에 관한 보호제도

역사지구 및 건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법적 제도는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특히 근대화의 과정이 서로 다른 서양과 아시아권의 나라 간에는 커다란 차이를 보여준다.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일본 등은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보존가치는 역사적 건축물 등을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하여 보호하였고, 이때 지정기준은 목조전통양식의 한옥건축물 등이 주요 대상이 되었다.¹¹⁾ 그 외 건축물의 구조나 양태가 다른 근대건축물에 대해서는 그 기준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고 있다가 일본 1996, 한국 2001년에 「문화재보호법」을 개정하여 '등록문화재제도'를 도입하여 근·현대 건축물 등을 등록하고 있다. 반면 주체적인 역할과 건축적 연속선상에서 근대화가 시작된 서양에서는 많은 나라가 등록문화재제도를 통해 역사적 건축물과 지구 등을 보존·보호하고 있다.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지에서는 19세기 초반부터 존가치가 있는 역사지구 및 건축물에 대해서 등록제도, 보전지구제도¹²⁾를 도입하여 현상을 변경하거나 멸실 또는 신축하고자 할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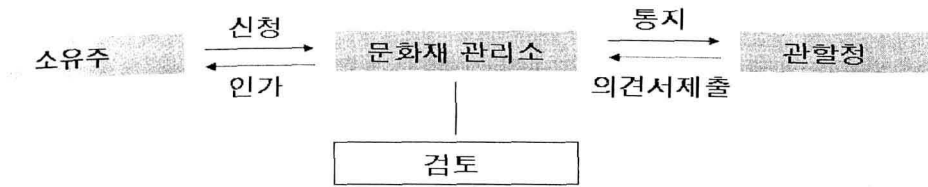
10) 대부분의 나라들은 문화유적지나 건축문화유산에 대해 「문화재보호법」 등을 통해 보호하고 있으며, 일부 역사도시에서는 '고도보존법' 등을 제정하여 해당 문화유산이나 지구의 역사·예술적 가치에 따라 보호수준을 달리하고 있다.

11) 김지성, "근대건축물의 보존·활용을 위한 등록문화재도입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산업대학원, 2005, p.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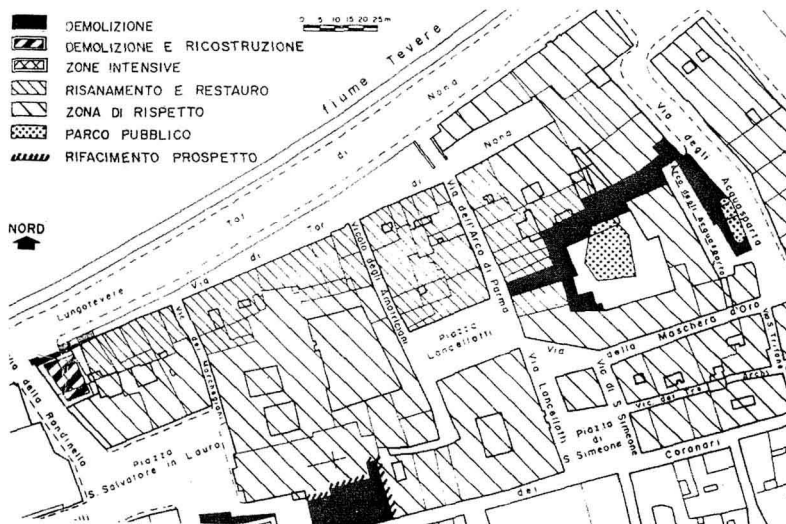
12) 이탈리아의 보전지구제도와 관련하여 '문화유산 및 경관법(n 137, 2007. 7. 6) 시행령에 의하면 이 법은 처음으로 보전지구에 대하여 문화재보호법상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역사적·예술적, 고고학적으로 가치가 있는 개별도시 또는 일부분, 건축물 집적지 국가적 기념비 또는 사이트, 지구 등의 문화유산 및 경관보전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법에 의하면 보전지구에 대해서는 경관계획수립 및 복구, 재정비, 건축물보존 및 관리 계획의 수립의무가 있으며, 또한 지구 내의 모든 건축물 등의 요소에 관해 조

신고 또는 해당 당국으로부터 허가 받을 것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나아가 보존지구의 건축물에 대한 보존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유지·관리하도록 법제화하고 있다.

앞으로 우리의 도시에서도 늦었지만 현재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여 서양의 많은 역사도시들처럼 전통과 역사가 조화된 도시경관·도시문화를 갖추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역사적인 건축물은 물론 가치가 있는 지구를 역사보존지구로 지정하는 등 도시 공간 속에 내재된 역사·전통·문화를 총체적, 종합적으로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미래 도시문화의 발



〈그림 13〉 이탈리아 역사적 건축물에 대한 건축행위절차: 1) 국가가 직접 소유주에게 보존관리를 위한 건축행위를 명할 수 있으며, 이때 문화재관리청은 이행할 건축행위의 필요성과 시공기술 등에 관하여 작성하여 소유주에게 전달하고 필요에 따라 소유주에게 프로젝트와 필요사항 사항들을 위임할 수 있음, 이때 소요 경비는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함(50%를 넘지 않도록 함)



〈그림 14〉 이탈리아 보존지구의 보존·관리기본계획: 철거, 철거후 재건축, 복구 및 복원 등 건축물별로 건축행위를 도시계획에서 결정하고 있음

사, 기록하고 평가하여 한다. 아울러 이 법에 의해 지구 내에 존치하는 대상별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행위 제한 및 이용 규제를 가할 수 있다.

〈표 8〉 문화재지정 및 등록 구분

구 분		법적근거	지정(등록)권자	문화재 종별
지정문화재	국가지정문화재	문화재보호법	문화재청장	국보·보물·사적 등
	시·도지정문화재	문화재보호법 지방자치단체 조례	시·도지사	유형문화재·기념물· 민속자료
등록문화재		문화재보호법	문화재청장	등록문화재

자료: 김지성

〈표 9〉 각국의 등록 문화재제도

국가	제 도	내 용
프랑스	역사적 기념물에 관한 법, 19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리 문화부 역사유산국 관리 — 중앙보존전문가: 건축설계사무소 소장, 지방공무원 신분으로 파견 — 지정문화재소유: 정부 6%, 지방정부 63%, 민간 28% — 1945년 이후의 것도 지정(50년 기준)
영국	도시전원계획법, 1971(1932, 도시농촌계획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홍보체육부(독립적 행정권을 가진 국가의 연방체이기 때문)세워진 후 30년 경과된 것, 특별한 경우 10년 경과한 것 1. 국가적으로 중요한 것(국가지정문화재 1.5%) 2. 지역적이거나 보존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등록문화재 98.5%)
일본	문화재보호법, 등록제도, 199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재청 건조물과 — 지정제도 보완(지정되어 보호조치 대상 제외) — 자치단체 의견수렴, 문화재보호심의회자문, 50년 이상 경과한 건조물

자료: 문화재청, “등록문화재 인센티브 개선방안 연구”, 2006, p. 67.

전과 문화산업 및 관광산업의 자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3. 도시에서의 관계성 회복

1) 관계성과 축재

현대 사회가 점점 빠르게 변화하고 생활의 범위 또한 넓어지면서 도시인의 삶 속에서 도시 공간이 가지는 의미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무엇보다도 도시의 공간 내에서 보내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면서 공간을 배경으로 하는 생활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어렵다. 사람들은 도시의 시민으로서가 아니라 직업적 또는 다른 목적에 의해 소속된 조직의 일원으로서 존재감을 찾게 되었고 그 안에서의 목적형 관계구축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조직과 조직 사람과

사람, 도시와 사람 사이는 더욱 이질적으로 분화하게 되었다. 이제 사람들은 전통적인 커뮤니티에 의존하는 대신 자신만의 독립적인 세계를 구축할 수 있는 도시의 익명성을 즐기게 되었다.¹³⁾

역으로 사람들의 삶이 개별화되고 분화될수록 전통적인 공동체 생활에서 유지되어 오던 커뮤니티 기능을 활성화하려는 시도들 또한 많아지고 있다. 그 중 하나가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축제들로서 상호 연관성은 많으나 점점 더 빈약해지고 있는 인간관계를 회복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특히 축제는 참여하는 모든 사람에게 공동의 경험과 기억을 통해 쉽게 상호연대감과 소속감을 갖도록 하는 기능이 있다. 이것은 언제가 보았던 스페인 어느 작은 마을의 성인 식축제에 참가한 청년의 인터뷰를 통해 여실히 드러난다. 이 마을의 축제는 고향을 떠난 사람들이 매년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는 비법을 가지고 있으며, 비법의 근원은 어린 시절 마을사람 모두와 함께 나누었던 축제의 경험이라고 한다.

“친구들과 가족들 그리고 동네 사람들과 같이 나눌 수 있는 추억을 만들기 위하여 축제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공동체를 복원 및 전통적인 관계 회복을 위하여 의도적으로 축제를 활성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대표적인 시도는 문화관광부의 문화관광축제사업이다. 사실 이 사업은 1995년 지역축제 중에서 관광 상품성이 높은 축제를 육성하여 지역관자원화하려는 목적에서 출발하였다. 그러다 몇 몇 축제들이 경제적 성과를 얻게 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공동체 회복에 기여하게 되었다. 이에 문화관광축제는 해마다 증가하여 1996년 8개 이던 것이 1997년 10개, 98년 18개, 2001년 31개, 2005년 27(예비축제미포함)개, 2006년 27개 지정 25개 총 52개가 선정되었다. 이외에도 전통적인 마을축제를 비롯하여 다양한 축제들이 전통계승, 친목, 관광 등 여러 목적을 가지고 개최되고 있다.

이들 문화관광축제의 현황을 살펴보면 1996년부터 금산인삼축제, 이천도자기 축제, 진도영등재, 부산자갈치축제, 광주김치축제, 춘천인형극제, 완도장보고축제, 수원화성 문화제 등 지역토산물과 문화제를 중심으로 축제가 전개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2005년 현재 역시 축제개수는 증가하였지만 축제테마에서는 별반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추진주체는 과거의 축제들이 전형적인 관 주도였으나 2006년 조사에 의하면 민·관 공동운영이 41.7%, 민·관·전문가 공동주도와 관주도가 22.2%, 민간주도가 13.9%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점차 공동체의 자발적인 의지에 의해 축제개최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현재 추진되고 있는 지역축제에 대해 비판의 소리가 높다. 그리고 인간관계 회복이나 전통적인 생활문화 계승 등 문화·상징적 이유보다 경제적 이익을 더 앞세우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바쁜 도시생활에서 점점 고립되어가는 현대인을 위하여 ‘소통과 대화’의

13) 김찬호, 『도시는 미디어다』, 책세상, 2002, p. 38.

〈표 10〉 2005년 문화관광축제 선정현황(27개)

축제명	지역	축제명	지역
강경갯길축제	충청남도	아산성웅이순신축제	충청남도
강진청자문화재	전라남도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경상북도
경주한국의술과떡축제	경상북도	양양송이축제	강원도
광주김치대축제	광주광역시	이천햐쌀축제	경기도
금산인삼축제	충청남도	인제빙어축제	강원도
김제지평선축제	전라북도	연천구석기축제	경기도
남도음식문화큰잔치	전라남도	연동난계국악축제	충청북도
남원춘향제	전라북도	진주남강유등축제	경상남도
대구약령시축제	대구광역시	춘천국제마임축제	강원도
무주반딧불축제	전라북도	충주세계무술축제	충청북도
보령머드축제	충청남도	풍기인삼축제	경상북도
보성다향제	전라남도	하동야생차축제	경상남도
부산자갈치축제	부산광역시	함평나비축제	전라남도
서천한산모시문화제	충청남도	-	-

자료: 문화관광부, '문화관광축제 변화와 성과', 2006, p. 113 재구성

장으로서는 축제가 어느 정도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현재 우리나라 축제가 안고 있는 제반 문제들을 보완·해결하여 나갈 때 스페인 청년이 느끼고 있는 진정한 축제의 맛과 추억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2) 축제의 장으로서 도시의 거리

“주요 공공장소인 도시가로와 그 보다는 그 도시의 가장 활기찬 기관이다. 도시를 생각하면 무엇이 떠오르는가? 만일 한 도시의 가로가 재미있어 보이면 그 도시가 재미있어 보이고 도시의 가로가 지루해보이면 도시도 지루해 보인다”는 제니 제콕스(Jane Jacobs)와 “가장 훌륭한 가로들은 쓸모 있을 뿐 아니라 즐겁기도 하다. 우리를 즐겁게 해주고 누구든 환영한다. 개개인을 다르게 인식하면서도 익명성을 허용한다. 훌륭한 가로는 커뮤니티와 그 역사의 상징이다. 훌륭한 가로는 공공의 기억을 대변하다. 그곳은 탈출이나 낭만, 행동과 꿈의 장소이다. 훌륭한 가로에서 우리는 결코 일어나지도 않을지도 모르는 일들을 기억하고 꿈꾸며, 아마도 결코 오지 않을 일들을 기대할 수도 있다”는 알렌 제콕스(Alla Jacobs)¹⁴⁾의 도시의 거리에 대한 이상과 환상은 현대

14) 뉴 어바니즘 협회, 안건혁, 온영태 옮김, 『뉴 어바니즘 현장』, 한울아카데미, 2003, p. 170, p. 123 재인용.



〈그림 15〉 교통으로서의 가로



〈그림 16〉 소통과 대화가 있는 가로

도시에서의 그것에서 여지없이 깨어지고 있다.

지금의 도시 거리는 낭만과 꿈, 커뮤니티와 역사의 상징으로의 의미는 퇴색하고 단지 통로로서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하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골목과 광장을 사이에 두고 오가던 전통적인 커뮤니티 방식은 이미 사라진지 오래 되었다. 기능과 경제성을 최우선으로 고려된 현재의 도시 가로는 사람들과 도시를 연결하기엔 너무 넓고 너무 빠르다. 광장은 여유와 낭만이 끼어 들 틈도 없이 조형, 분수 등 이미 너무도 많은 것으로 채워져 있다. 앞서 논의 되었던 것처럼 도시로부터 단절을 극복하기 위하여 다시금 가로의 전통성을 요구하고 있다. 익명성을 즐기는 동시에 많은 것과 소통하고 미래로의 도약을 꿈꾸면서 전통적 관습과 공공의 기억을 간직할 수 있는 훌륭한 가로의 모습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여 우리나라에서는 ‘문화의 거리’라는 형태로 개념화 하고 있다. 특히 문화의 거리는 문화관광부를 중심으로 지역의 문화적 전통과 특색을 살리는 한편 쾌적한 문화환경 조성과 함께 도시의 문화적 이미지를 제고하고 지역민의 문화예술참여 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조성되고 있다. 아울러 문화의 거리 조성을 통해 문화예술축제와 문화활동의 중심공간이자 도시관광의 핵심자원으로 활용하고자 의도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에서 조성된 문화의 거리는 문화조성사업의 일환으로 1999년부터 2004년까지 23개 지역에 총 36억을 지원되었으며, 2005년부터는 지방이양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문화의 거리는 도시민에게 각 지역의 문화의 특색을 살린 문화공간을 제공하였을 뿐만아니라 주변 상권을 개발하고 관광자원으로서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문화의 거리만으로는 도시민으로서 문화적 자긍심을 고취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만 문화의 거리를 거점으로 문화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될 수 있도록 제반 문제들을 해결하고 도시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이루어진다면 도시의 문화거점이자 축제의 장으로서 충분히 제 역할을 담당할

〈표 11〉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1999~2004)

연도	지역/국비/억원	지역/국비/억원	지역/국비/억원	지역/국비/억원	지역/국비/억원
1999	서울 인사동/1	광주동구예술거리/2	대구 약령시/2	울산중구문화거리/1.5	서천기벌포항구/2
2000	부산 용두산/1	대전중구문화거리/1.5	청주 문화거리/2	동해문화거리/1.5	순천 문화거리/2
2001	수원 나혜석/1	전남영암 왕인거리/1	나주 문화거리/2	천안유관순길/1.5	무주 한풍류/2
2003	영암 왕인거리/2	김해 문화거리/2	전주 남가람/2	완주젊은문화거리/1.5	영도 태종대/1
2004	김해문화거리/1	서귀포 이중섭/1.5	-	-	제천문화패션/1

자료: 문화관광부, 『지방이양문화사업의 운영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2006, p.78.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사람들이 어슬렁거리고 다채로운 음악이 연주되기도 하며 다양한 공간이나 전시회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한바탕 축제가 벌어지기도 하는, 사람들의 문화를 엿볼 수 있는 알렌 제콥스가 말하는 훌륭한 거리로서 면모를 갖추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II. 나오면서

우리가 사는 도시는 크고 작은 다양한 공간들로 이루어져 있다. 각기 공간은 공간의 주체자인 사람들의 필요와 요구에 의해 만들어 지고 변형되며 사라진다. 잠을 자고 쉴 수 있는 거주공간으로서의 집과 이동을 위해 만들어진 도로, 일을 하기 위해 만들어진 업무공간으로서의 사무실, 놀이와 여가를 위한 공원 ... 각각의 공간마다 담는 활동들이 다르고 형성된 과정도 다르다. 앞서 논의 되었던 것처럼 도시는 우리에게는 어제와 오늘, 오늘과 내일, 꿈과 현실이 뒤 섞인 미로처럼 각자의 시선에 따라 그 모습은 전혀 다른 형태로 나타난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도시와 어떻게 소통하고 관계를 맺는가에 따라서 전혀 다른 공간과 문화를 체험할 수도 창출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이제는 도시에 대한 우리의 기억과 희망을 표현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을 찾아서 과거 도시들이 성장과정에서 겪었던 수 많은 시행착오를 줄여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참고문헌

- 철학아카데미, 『공간과 도시의 의미들』, 소명출판, 2004.
 뉴 어바니즘 협회, 안건혁, 운영태 옮김, 『뉴 어바니즘 현장』, 한울아카데미, 2003.
 에드워드 렐프, 김덕현 옮김, 『장소와 장소상실』, 논형출판, 2005.
 김찬호, 『도시는 미디어다』, 책세상, 2002.

- 김효정, “국토의 문화적 잠재력의 재발견”, 『국토연구』, 2007. 2.
- 문화관광부, 「지방이양 문화사업의 운영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2006.
- 문화관광부, 「문화관광축제 변화와 성과」, 2006.
- 문화재청, 「등록문화재 인센티브 개선방안 연구」, 2006.
- 문화체육부, 「문화예술의 거리」, 1996.
- 기획예산처, 「2005~2009 국가재정운용계획」, 2005.
- WTO. *Compendium of Tourism Statistics*, 2006 Edition.